

“피자 가득 담긴 우정 나누기”



피자를 먹으며 사랑을 나누는 200여 명의 성우원 원생들과 해원정사 신도들.

있는 임수영 선생님의 진행으로 장기자랑이 열렸다. 이어진 발표 시간은 <반야심경> 봉독·원허 스님의 간단한 인사말로 대신했다. 불편한 몸이지만 합창하고 <반야심경>을 또렷하게 외는 원생들이 제법 눈에 띈다.

해원정사의 초청으로 1년에 한 번 짚을 찾아 피자 파티와 법회를 시작한 것은 1993년.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해원정사 학원회에서 성우원 봉사를 해오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원생들을 사찰로 초대하는데 뜻을 모으면서 시작된 행사였다. 그때만 해도 맛보기 어려웠던 피자를 대접한 것이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것이다.

요즘도 학생회 회원 20여명은 한달에 한번 꾸준히 성우원을 찾아가 원생들과 즐거운 놀이를 함께 하며 친구가 돼 주고 있다. 선배들이 졸업하면 후배들이 이어온 성우원 봉사는 이제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정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이날 피자 파티에 참석한 봉사자들은 “원생들과 함께 피자를 나눠 먹으며 서로를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원허 스님은 “10년 전, 처음 장애아들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당황하는 걸 보고 스스로 놀랐다”며 “11년에 한번 사람을 찾아 피자파티를 여는 일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값진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해원정사 장애우 사랑 10년째 법회·장기자랑하며 편견 없애

“피자 맛있어요. 끝내줘요.”

부산 해원정사(주지 원허) 육화전에서는 피자 파티가 한창이다. 10월 21일 점심시간 해원정사를 찾은 200여 명의 성우원 원생들은 분명치 않은 밝음으로 피자 파티의 즐거움을 표현했다. 지체장애인이실인 성

우원 원생들이 1년에 한 번 해원정사를 찾아 피자파티를 연 날, 해원정사 봉사회 회원들이 총 출동해 파티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

봉사자들이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학생회 지도 교사로 8년째 성우원을 방문하고

산사는 지금 ‘단풍 연주’ 중



대구 광덕사 대웅보전 앞에서 열린 가을산사음악회는 김미로운 선율을 선보이며 불자들을 사로잡았다.

대구경북 지역 불자들은 곳곳에서 펼쳐지는 산사음악회로 더욱 풍성하고 감미로운 가을을 맞고 있다. 10월 16일 경북 청도 적전사(주지 덕현)

가 개산 13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은행나무 별빛 축제’를 시작으로 선석사, 금강사, 광덕사 등에서 연이어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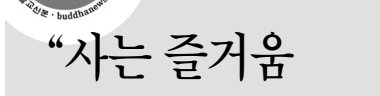
1340년 만에 800년 된 은행나무(천연기념물 58호) 아래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펼쳐진 적전사 산사음악회는 500여명의 청도군민들이 바쁜 일손을 놓고 모여 드는 등 성황을 이했다. 퓨전 국악편곡단 여음의 공연과 가수 박창근, 블루스 밴드, 적전사 반야합창단, 청도 모계고등학교 박병기 교사의 색소폰 연주를 감상하며 군민들은 잠시나마 여유를 누렸다.

19일 대구 광덕사(주지 운성)가 개최한 광덕사 합창단 후원의 밤 가을 산사 음악회에는 7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카페가수 김난영, 박숙희, 이국진, 이은자 씨를 비롯해 플루트로 유명한 서연 스님의 공연을 감상했다. 이날 광덕사 신도들은 음악회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약차, 보이차, 커피와 도너스를 대접했다.

그 외에도 17일에는 성주 선석사(주지 선된)가 자원봉사단을 창단하면서 음악회를 개최했고, 대구 금강사(주지 현철) 금강반야합창단의 제 6회 정기발표회가 16일 대구 문화체육관에서 열렸다.

보현사 ‘아름다운 토요일’

“사는 즐거움 돕는 보람 커요”



“양말 5켤레, 가방, 옷 4벌, 아이들 장난감 2개, 머리카락도 1개, 포크 5개, 냄비 1개... 이 냄비는 비행기 날개 만드는 소재로 만들었다는 건데 어디서 찾았어요? 전부 2만 3천원입니다.” 이것저것 한가지를 샀는데 겨우 2만3천원이다. 쇼핑백 대신 마음에 드는 가방 하나를 사서 거기에 모든 물건을 넣었다.

대구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가 지역 종교단체로는 처음으로 재활용품 전문매장인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한 10월 16일 동아쇼핑 9층, 이날 ‘아름다운 가게’는 문이 열리지마자

손님으로 가득 찼다. 아예 오전 오후 2번씩 다녀가는 사람과 새로온 물건이 많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가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다.

보현사 신도들은 이날 하루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재활용 물건 3천여 점을 불자들에게 기증했다. 양말 공장으로부터 재고품 양말 300켤레와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신도로부터는 신발 50켤레를 잔조받기도 했다.

이날 보현사 신도들은 30명이 2교대로 명예전사라는 이름표와 연두색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이 상품을 잘 고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도 이날 하루는 동아쇼핑에서 연두색 앞치마를 입고 나섰다.

신도회장 이영순(49) 씨는 “처음에는 ‘내가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도 될까’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모든 손님들이 자기에게 맞는 물건을 기쁜 마음으로 구입해 가는 것을 보니 너무 즐겁고 보람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불자들 재활용품 3천여 점 기증

보현사 신도들은 이날 하루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재활용 물건 3천여 점을 불자들에게 기증했다. 양말 공장으로부터 재고품 양말 300켤레와 신발 가게를 운영하는 신도로부터는 신발 50켤레를 잔조받기도 했다.

이날 보현사 신도들은 30명이 2교대로 명예전사라는 이름표와 연두색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이 상품을 잘 고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도 이날 하루는 동아쇼핑에서 연두색 앞치마를 입고 나섰다.

신도회장 이영순(49) 씨는 “처음에는 ‘내가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도 될까’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모든 손님들이 자기에게 맞는 물건을 기쁜 마음으로 구입해 가는 것을 보니 너무 즐겁고 보람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종립학교 수업개선 방안 모색

불교교육연합회 교학발표회

불교교육연합회 주최로 불교 종립학교를 순회하며 종립학교 청소년 교화를 위한 연구 주제를 선정·발표하는 제 34회 교학 발표회가 10월 22일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최주석)에서 열렸다.

교학 발표회는 전국 종립학교 연합회인 불교교육연합회에서 지정하여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행사로 종립학교 청소년 포교 방안을 주제로 교법사의 주제 발표와 연구 수업이 이뤄지게 된다.

이날 교학 발표회에서는 금정중 이석인 교법사가 연구 수업과 논문 발표로 수업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석인 교법사는 ‘불교의 의례-우란분절과 철월 칠석’이라는 종교 수업을 통해 불교의 효와 사랑을 새롭게 정리하고 청소년들의 효 사상 고취와 순결한 사랑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업을 가졌다. 조별 발표, 존극 등으로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수업은 전

국에서 참여한 교법사, 종립학교 교장 등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석인 교법사는 ‘불교적 심성프로그램을 활용한 부적응아 지도 방안 연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를 화랑도 수련사상을 응용,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석인 교법사는 화랑도의 ‘도의로 서로 사귀기’에서 응용한 예절, 명상, 다도교육과 ‘춤 노래로 서로 즐기기’에서 연구, 시조창을 ‘산천을 노닐기’에서 야영 체험활동, 템플스테이, 야생화 견학, 불적유적지 순례, 문화유적 탐방 등의 수업 형식으로 부적응아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같은 수업 형식은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부적응아 지도에 성과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마음 찾는 도량 되길” 해인사 고불암 개원법회



할렐 해인사 산내 암자 고불암 낙성, 점안 및 개원법회가 10월 17일 열렸다. (사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총무원장 법장·중앙총회회장 지하·수좌대표 인가·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과 심의조 합천군수 등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점안식과 헌관식, 2부 산사음악회, 3부 개원법회로 진행됐다.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가야산에 조주 스님의 본래 마음을 찾아내려는 사부대중이 정진할 수 있는 도량이 생겼다”며, “조주 스님의 본래마음을 찾기 위해 운문선사의 ‘고불노주’ 공안을 잘 참구해 보라”고 강조했다.

고불암 감원 선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산중화합에 앞장 설 것, 고불암 대중의 보살핌이 필요한 수행자를 모시고 살 것, 특별선원과 재가사 수련원을 개설하여 수행도량으로 만들 것, 고불암의 모든 소유권을 해인사로 등록하며, 창건주를 해인사로 지정하여 해인사 공찰로 거듭날 것”을 서원했다.

배지선 기자

노인무료요양원 ‘화방동산’ 2월 기념법회 및 부속등 준공

2002년 문을 연 노인무료요양시설 남해 화방동산(원장 효천)이 10월 30일 개원 2주년을 맞아 고산 스님 초청 기념법회를 연다.

사회복지법인 화방동산이 운영하는 화방동산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 모델로 꼽힌다.

특히 30일 준공식을 갖는 신관에는 최철단 설비팀 갖춘 영화관, 노래방, 프로그램실, 전망대와 친화적인 휴식 공간이 꾸며졌다.

개원 2주년 기념법회가 열리는 30일, 고산 스님 초청 법회와 입주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한지 공예 작품전, 화방동산 활동 사진전 등을 선보인다.

천미희 기자

문화행사로 가을 산문 ‘활짝’ 통도사 개산대제 회향

개산 1359주년을 맞는 불보종찰 통도사(주지 현문)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산문을 활짝 열었다.

10월 21일 개산대제 및 영축사생대회 입재를 시작으로 6회 부도헌대제, 부처님가사·자장율사 가사 친견 등의 행사를 열었다. 22일에는 괘불 헌배, 불공의식, 개산대제 법요식, 재풍잔치, 12회 공주 마곡사 괘불탱 특별전, 개산대제 기념 합창제, 지역 노인 위문 공연도 가졌다.

현문 스님은 “자장 스님을 재조명하는 대학생, 일반인 학술대회나 구하 스님을 상징하는 상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개산대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천미희 기자

설기문 박사의 제2기

빙의치유 세미나

1997년 이후 국내 최초로 “최면-전생 상담”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전문 제자를 양성하고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설기문 박사가 풍부한 학술 및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빙의치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는 최면치료와 전생치유의 원리와 실재를 함께 강의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1) 교육일정: 11월 10 ~ 11(수 ~ 목요일), 17 ~ 18(수 ~ 목요일), 23 ~ 25(화 ~ 목요일)
- 교육시간 - 매일 10:00 ~ 19:00 (교육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

- (2) 교육내용: ① 전통적 최면과 에릭슨의 간접적 최면법
- ② NLP(신경-언어프로그래밍)와 시간선치료(Time Line Therapy) 기법
- ③ 전생치료 및 영기전도의 원리와 기법
- ④ 볼드윈 박사의 빙의치료법

- (3) 등록방법: 참여희망자는 11월6일까지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고 반드시 별항에 제시된 연락처의 전화나 e-메일로 확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 128-05-0000-897 (예금주: 설기문)

- (4) 교 육 비: 200만원 (마감일 이후는 210만원임)

- (5) 장 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 수리산 창박골 기숙
-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2km거리임 (안양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20분 거리임)

- (6) 기타 참고사항
- ① 3명 이상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② 본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추가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참여자에게는 기본강의교재, 참고도서 2권, 실습용 녹음테이프를 제공하며 수료시에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 강사 소개

- 학력: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 미국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
- 경력: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교수 역임. 미국 California 주립대학교와 캐나다 University of Victoria에서 각각 객원 교수 역임. 1997년 이후 국내 최초로 “최면-전생 상담” 공개 세미나를 열고 최면-전생상담을 보급하고 제자 양성을 하였음.
- 자격사항: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공인 상담전문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면치료, 전생치료, 시간선치료, NLP 과정을 공부하고 해당분야의 공인 전문자격증을 다수 취득함. 볼드윈박사에서서 전생치료-빙의치료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자격증 취득함.



(소속 공인 단체: American Board of Hypnotherapy, American Board of NLP, Time Line Therapy Associ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gression Research and Therapies)

- 언론보도: KBS를 비롯한 TV, 방송, 각종 신문, 잡지와 같은 언론 매체에서 최면, 전생치료, NLP 치료 및 자기개발과 관련하여 수 차례 보도됨. 특히 1998년에 KBS-2TV에서 방영된, 전생에 “독립군”이었던 여인에 관한 내용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음.
- 저서: “최면과 전생퇴행”, “최면과 최면치료”, “최면의 세계” “설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 가기 참 쉽다” “자기혁신을 위한 NLP파워”, “NLP와 건강”, “NLP의 원리”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의 다수 출간함.

■ 빙의의 문제와 볼드윈박사의 빙의치료법

빙의란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른 영가가 침입하여 심신의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결과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진단 또는 치료가 되지 않는 심신의 고통을 받게 되며 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빙의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번하게 있어왔다. 특히 미국의 볼드윈박사는 의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세계 최고의 빙의치료전문가로서 독특한 “6단계 빙의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설기문박사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볼드윈박사의 빙의치료 원리와 실재를 전수하는 장이 될 것이다.

